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동향	02
2. 국외 항만 동향	11
3. 품목 및 산업 동향	18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신항, 'LNG 벙커링 터미널 사업' 예타 통과
- 인천항,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활동 강화
-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실무협의체 본격 운영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항만 검역 확대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지속 예상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해상 무역 촉진 예상
- LA항·롱비치항, 적체 감소로 벌금부과 시점 연기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21년 10월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CTI) 전월 대비 증가
-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
- '22년 조선업계 수주 호조 지속 전망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신항, 'LNG 벙커링 터미널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¹⁾

- ✦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부산항 신항 복합 LNG허브 터미널 사업' 제안서가 11월 14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함
 - 해당 사업은 지난 '19년 5월 부산시와 경상남도 간에 체결된 '부산항 미래비전 실천을 위한 상생협약'에 따라 부산항 신항 남측 배후부지를 LNG 벙커링 입지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계획상에도 해당 사업이 반영된 상태임
 - 한국가스공사는 총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투입하여 LNG 탱크 27만 CBM 3기와 부두 4선석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제안서를 제출함
- ✦ 이미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가스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는 빠른 시일 내로 한국가스공사와 BPA 간 3자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비 부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 ✦ 한편,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4,848억 원의 민간투자로 추진되며 '22년 착공하여 '30년 완공 예정임

② '20년 부산항 초미세먼지 전년 대비 47.6% 감소²⁾

- ✦ '20년 부산항의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총 820.07톤으로 전년 대비 744.3톤 (-47.6%) 감소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과 미국환경청(EPA)의 산정방식을 활용함
 - 이는 '18년 대비 약 45%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부산항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 추진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치인 35%를 크게 웃돈 수치임
- ✦ 배출원별로 살펴보면 선박이 766.94톤(-48.8%), 하역장비 35.51톤(-29.0%), 화물차량 17.62톤(+0.5%) 순으로 나타남
 - 화물차량에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선박과 하역장비 부분에서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함
- ✦ 선박 및 하역장비 부문에서의 두드러진 감소는 국제적인 환경 규제강화에 따른 정부 및 BPA의 친환경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 국제해사기구는 지난해 1월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BPA는 항만 인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저속운항을 독려하고 있음

1) 부산일보(2021.12.12.),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21218254802513>(2021.12.13.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2.10.),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012>(2021.12.13. 검색)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2.10.),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7014>(2021.12.13 검색)

- 또한 야드트랙터(총 684대)에 대해서 약 70%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친환경 하역장비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 한편, BPA는 'LNG 로드 트랙터 도입 시범사업'에 참여할 운송업체를 지난 12월 10일 공모하였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차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³⁾

2) 인천항

①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활동 강화⁴⁾

- 🌟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12월 6일 인천항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를 통합관리 하기 위해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밝힘
- 인천항은 총 2.86MW급(4인 가구, 95세대 사용량) 태양광 발전소 5개소를 북항(2개소)과 내항(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음
- 🌟 통합관리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 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5년 12월부터 '18년 11월까지 개발되었으며 '22년 중에 운영 개시될 예정임
-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은 발전설비에 사물인터넷(IoT)센서를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상청 날씨 정보와 연계하여 인천항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량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할 수 있음
- 증강현실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유지보수 시점을 판단할 수 있어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② IPA의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Smart-AMP) 녹색기술인증 취득⁵⁾

- 🌟 IPA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 국산화 개발에 대한 녹색 기술인증을 취득함
- 녹색기술인증은 신재생 에너지, 탄소저감 등 사회, 경제 활동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임을 인증하는 제도임
- 🌟 인천항만공사는 '18년 11월부터 대형선박에 적용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의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음
- 기존 AMP는 해외제품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
- 이에 IPA는 국내 전력기기 제조업체와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AMP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며 ICT 기술들을 활용하여 인천항에 설치된 AMP를 관리·운영 및 진단해옴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2.06.),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0412&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1.12.15. 검색)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2.15.),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0460&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1.12.15.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탄소중립 항만 구축 MOU 체결⁶⁾

✎ YGPA는 지난 10일 SK E&S, CAPACITY, 광양항서부컨테이너터미널(GWCT), 한국 국제터미널(KIT)과 수소 야드트랙터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YGPA는 지난 9월 '여수광양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서 경유 야드트랙터 100대를 수소 야드트랙터로 전환하는 사업임
- 협약에 따르면 YGPA는 장비 도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SK E&S는 수소충전소 구축 및 시험장비 제공, KIT와 GWCT는 장비 도입에 필요한 부지 제공 및 운영을 지원함
- 또한 CAPACITY는 시험장비 제공 및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여수광양항이 탄소 중립항만으로 거듭 나고 수소 공유생태계 조성을 선도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함
- YGPA는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720톤의 수소 소비수요를 창출하고 5,04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등 탄소중립항만 구축 및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함

✎ 아울러 YGPA는 수소 야드트랙터 도입 사업과 더불어 트랜스퍼 크레인 23기 전동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 트랜스퍼 크레인 전동화 사업을 통해 연간 30억 원 이상의 운영비 절감과 연간 약 4,000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으로 YGPA는 컨테이너 부두 내 모든 하역장비를 친환경 동력으로 전환해 탄소중립 항만의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나갈 예정임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2.10.),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070&category=\(2021.12.10. 검색\)](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070&category=(2021.12.10. 검색))



4) 울산항

① 그린수소 물류허브 실무협의체 본격 운영⁷⁾

- ✎ 울산항만공사(UPA)는 11월 17일, 수소 경제 핵심업체들과 울산항을 그린수소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짐
-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8월 26일 한국동서발전, 롯데정밀화학, SK가스, 현대글로벌비스와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이 업무협약은 울산항을 거점으로 '해외 그린수소(암모니아) 수입, 해상, 저장·보관, 유통, 수요'로 이어지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실무협의체는 장기적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정기적인 사업발전 및 협업 방안 논의를 위해 구성됨
- 이번 회의에서는 각사의 수소-암모니아 사업 계획, 정부 정책 동향 및 현안사항 등 정보 공유를 토대로 향후 실증사업 유치, 수소 수요 창출, 단계적 사업 확장 등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논의함
- 또한 울산항의 해외 그린수소 수입-공급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타당성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를 거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으며, 실무협의체를 통해 사업추진 실행력을 높이고 수소-암모니아 수입의 First Mover 항만의 입지를 다질 계획임

② 울산항만공사, 울산해경·해양환경공단과 온실가스배출권 업무협약 체결⁸⁾

- ✎ 울산항만공사는 11월 26일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과 AMP(육상전원공급 설비)분야 온실가스배출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해경의 1009함 및 해양환경공단의 청화 2호가 정박하는 동안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AMP 설치를 지원하여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2050 탄소 중립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 AMP 사용으로 기존 연료(경유) 사용으로 1009함과 청화 2호에서 배출되던 온실가스 약 200톤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두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상쇄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됨

7)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1.19.),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4296\(2021.12.15.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4296(2021.12.15. 검색))

8)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1.11.26.),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4300\(2021.12.15.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dataId=14300(2021.12.15.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개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⁹⁾

해당 사업은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현)국제여객터미널부지 및 (신)터미널 배후부지 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이며, 11월 1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함

- 평택시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현재의 터미널 부지를 친수공간으로 변경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으며, '20년 12월 고시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됨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기능이 상실된 현재의 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새롭게 조성되는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를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친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11월 12일 개최한 중간보고회에서 (현)국제여객터미널 부지 105,600㎡,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 71,500㎡ 및 (신)터미널과 (현)터미널 간 보행연결로 1.0km(약 10,590㎡)에 해양교육, 예술,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항만친수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현)터미널부지에는 전시, 체험/홍보관을 조성하고 (신)터미널 배후부지에는 테마정원, 행사광장 등을 설치해 두 공간 연결을 통해 친수시설 간 연계성을 확보할 예정임

평택·당진항 (현)국제여객터미널과 (신)국제여객터미널 위치도



9) 평택시 보도자료(2021.11.15),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lDx=259624&ptDx=90>(2021.12.15. 검색)

자료: 평택시 보도자료(2021.11.15),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lDx=259624&ptDx=90>(2021.12.15. 검색)



8) 동해·목포항

① 동해신항, 민자 석탄부두 착공 연기¹²⁾

- 📌 동해신항에 건립 예정되어 있던 석탄부두(1선석, 10만 톤급)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포기
로 인해 착공이 연기됨
- '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동해안 3단계 개발구역은 '19년 8월 '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19~'40년)
이 확정됨에 따라 '동해신항'으로 지정되었음
- GS글로벌 컨소시엄은 '18년 동해안 3단계 개발 중 석탄부두(1선석, 10만 톤급) 사업자로 선정되었
으나 최근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힘¹³⁾
- 석탄부두는 '20년 10월 실시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계획대로 '21년 10월에 착공했어야 하지만
착공을 1년 미룬 상태임
- 1선석 공사 연기로 인해, '22년 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2, 3선석의 공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13년부터 '30년까지 총 1조 7,342억 원을 투입하여 '동해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동해항 3단계 사업의 외곽시설 공정률이 92%로 '22년 4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음
- 방파호안이 완공되면 석탄부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석탄부두의 착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임항철도와 도로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겨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12) G1방송(강원지역방송) 보도자료
(2021.12.02.), https://www.g1tv.co.kr/news/?mid=1_207_6&newsid=257424(2021.12.07. 검색)

13) G1방송(강원지역방송) 보도자료
(2021.10.13.), https://www.g1tv.co.kr/news/?mid=1_207_5&newsid=254564(2021.12.07. 검색)

9) 목포항

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겨울철 해양안전관리 강화방안 시행¹⁴⁾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함
- 주요 내용으로는 설 명절 대비 목포 및 완도 지역 연안여객선 69척에 대한 특별점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시설물 및 작업 현장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임
- 특히 카페리 화물선의 최대 승선 인원 및 화물 고박 지침 준수 여부 확인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점검을 중점에 두고 실시할 예정임

1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1.12.13.),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78442>(2021.12.13.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항·장항항 항만해역 정밀 수심 측량 결과 군산항 진입로 수심 5년 만에 1~3m 얕아짐¹⁵⁾

- 📍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서해안 중부권의 주요 관문항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항은 금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토사의 퇴적으로 수심변화가 심해 주기적인 준설과 수심측량이 필요한 항만임
- 📍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군산항과 장항항 전체 해역에 대한 정밀 수심측량을 '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함
- 군산항과 장항항의 수심은 지난 '16년 이후 약 5년 만에 측량된 것이며 항해안전에 필요한 최신 수심 정보가 확보됨
- 금회 조사결과 군산항 진입로 부근의 수심 변화는 미미하지만 부두들이 입지한 항 내측의 항로구역 수심은 과거 대비 일부구간에서 1~3m 얕아진 것으로 확인됨
- 향후 군산항과 장항항의 수심 및 해저지형 정보가 수록된 항만정보도면을 별도로 제작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해양경찰서 등에 제공할 계획이며 선박의 항해안전을 위해 활용될 예정임

15) 국립해양조사원(2021.12.15), [https://www.khoa.go.kr/user/bbs/detailBbsList.do?bbsMasterSeq=BOARD_MS_T_0000000003&bbsSeq=B_BS_000000006606\(2021.12.15. 검색\)](https://www.khoa.go.kr/user/bbs/detailBbsList.do?bbsMasterSeq=BOARD_MS_T_0000000003&bbsSeq=B_BS_000000006606(2021.12.15. 검색))

11) 마산항

①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실시¹⁶⁾

- 📍 마산시는 마산항 광역개발에 따라 마산항 진입을 위한 총 7.91km의 도로 건설사업을 진행 중임
- 1단계, 2-1단계 구간(3.95km)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2단계와 3단계 구간 약 3.96km는 시행 예정임
- 📍 지난 9월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2-2단계 및 3단계 공사를 위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함¹⁷⁾
- KDI는 창원시의 교통수요가 사업 착수 이전인 '99년 실시한 최초 예측치보다 약 74%가 감소했다고 통보
- 재조사 예측치가 '99년 최초 예측치에 비해 크게 감소한 요인은 '99년에 추정된 인구나 항만 물동량 예측치가 최근 재조정되었기 때문임

16) 경남일보 (2021.12.12),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265\(2021.12.14. 검색\)](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265(2021.12.14. 검색))

17) 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2021.09.07),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215\(2021.12.14. 검색\)](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7215(2021.12.1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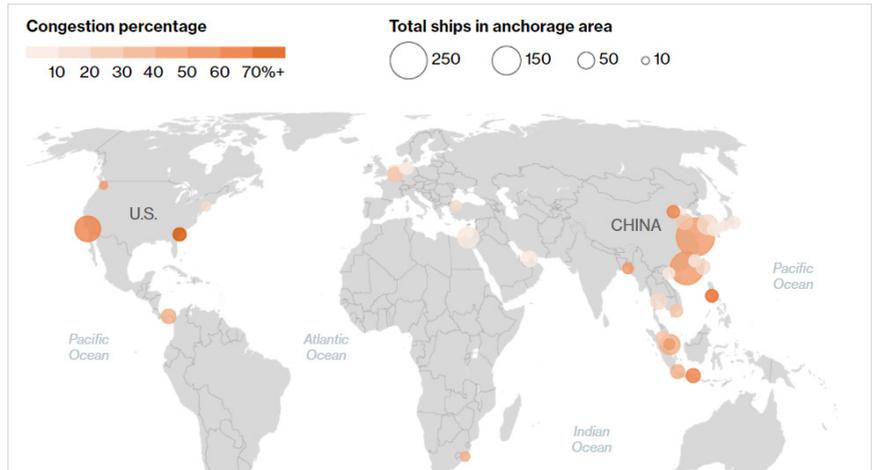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중국 항만 검역 확대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지속 예상¹⁸⁾

- ✎ 중국 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확대, 중국 항만 선원들에게 7주간 의무 격리를 부과함
 - 중국은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 교체 금지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선원들에게 중국으로 돌아오기 전 3주, 항만에 도착 후 2주, 항만을 벗어나 가족들과 재회하기 전 2주를 포함한 총 7주간의 의무 격리를 부과함
- ✎ 이러한 규제 확대로 인해 선사들의 운항 계획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선원 교체 및 선적의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해운항만업의 핵심 국가이나 코로나19에 대한 극단적인 정책 고수로 항만 혼잡이 극에 달하고 있음
 - 화주 및 선주들은 항만 혼잡에 따른 선박의 체선료, 선원 교체에 따른 격리 및 이동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 ✎ 한편,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완화되고 있었으나 중국의 규제강화에 따라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항만 혼잡도



18) Bloomberg(2021.11.2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1-24/china-s-seven-week-port-quarantine-is-blocking-shipping-recovery>(2021.12.13. 검색)

자료: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11-24/china-s-seven-week-port-quarantine-is-blocking-shipping-recovery>(2021.12.13. 검색)



2) 아시아

① 베트남해양공사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베트남 국영선사의 선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 신규서비스를 개시함¹⁹⁾

✎ 베트남해양공사(Vietnam Maritime Corporation, VIMC)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물류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베트남 국영선사(Vietnam National Shipping Lines, Vinalines)들의 선박 부족과 컨테이너 장비 및 새시 부족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원활한 수출입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베트남에서 유럽 및 북미로 운송되는 화물 운송료가 '21년에 3배~7배 상승함
- VIMC는 베트남에서 미국까지 40피트 컨테이너당 4천 달러였던 운송비가 현재는 2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싱가포르나 홍콩을 경유해 운송된다고 밝힘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기항지 적체 현상으로 운항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 선사들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화물량이 적은 베트남 항만을 제외하고 기항함에 따라 베트남 수출업체들의 선적 확보량은 더 급격히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항만물류 적체현상과 비용 상승을 타개하고자 VIMC는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의 신규 서비스 노선을 개설함

- 한 달간의 임시운항을 마치고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 항해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베트남 경제회복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② 문드라항, 이란발 수출입화물 운송 재개²⁰⁾

✎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은 인도의 문드라 항만(Mundra Port)에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에 대한 수출입 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힘

-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과일, 수지 및 야채 추출물, 커피, 차, 향신료 등을 수입하고, 건조 과일, 무기화학물질, 희토류 금속, 광물 연료 및 역청 물질은 이란, 프로젝트 물품 및 알루미늄은 파키스탄에서 수입하고 있음
- 지난 10월 구자라트 항만(Gujarat Port) 내 2개의 컨테이너에서 약 3,000kg의 헤로인이 발견되면서 항만을 운영하는 아다니 그룹은 문드라 항만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을 금지한 바 있음
-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출입 금지 해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아다니 그룹은 보안의무를 준수하기로 동의한 터미널 및 선박 운전자, 통관 중개인 협회, 수입업자와 협의한 후 금지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함

19) Container News(2021.12.01.), <https://container-news.com/vimc-launches-service-to-bring-vietnamese-goods-to-malaysia-and-india/>(2021.12.15. 검색)

20) FINANCIAL TRIBUNE(2021.12.10.), https://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111533/adani-group-resumes-cargo-traffic-from-iran-at-indian-port(2021.12.14. 검색)



④ 하카타항, 냉동화물선 방파제와 충돌²¹⁾

일본 해안경비대는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10,600DWT의 냉동화물선 'Lady Rosemary(레이디로즈마리)'호가 부두를 출발한 지 15분 만에 방파제와 충돌했다고 밝힘

- 일본 해안경비대는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10,600DWT의 냉동화물선 'Lady Rosemary'호가 부두를 출발한 지 15분 만에 방파제와 충돌했다고 밝힘
- 기상 및 조류 등으로 인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선박에 탑승했던 선원 22명도 큰 부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사고로 인해 약간의 기름 유출이 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본 해상보안청은 방호벽을 설치하여 기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함
- 후쿠오카 해안경비대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을 위협하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선박의 운항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1) The Maritime Executive(2021.11.29.),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video-reefer-hits-seawall-departing-japanese-port>(2021.12.14. 검색)



3) 미주

① LA항·롱비치항 적체 감소로 벌금부과 시점 연기²²⁾

- 미국 산페드로만에 위치한 LA항과 롱비치항이 컨테이너 장기적체로 부과 시점을 12월 27일로 연기함
- LA와 롱비치항은 당초 두 항만에서 장기간 체류한 화물을 빼내고자 11월 1일부터 적체 수수료를 운송사에 부과할 계획이었으며, 트럭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는 9일, 철도로 반출되는 화물은 6일 째 되는 날 컨테이너 1개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다만, 현장 혼란을 이유로 11월 15일로 부과 시점을 미루고, 이후에는 물류대란 사태가 완화됐다며 11월 22일로 1주일 연기했으며, 이어 같은 달 29일로 부과 시점을 다시 조정하는 등 12월 27일까지 총 6차례를 연기함
- 두 항만당국은 터미널 상황이 나아지면서 적체 화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1주일 동안 상황을 지켜본 후 벌금 부과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임
- 서안 주요 항만에서 적체가 여전히 운임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LA와 롱비치항은 징수되는 적체료를 효율성 제고와 화물 이동 속도 향상, 혼잡 완화 등의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임

② 해양수산부,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Acajutala) 확장사업 논의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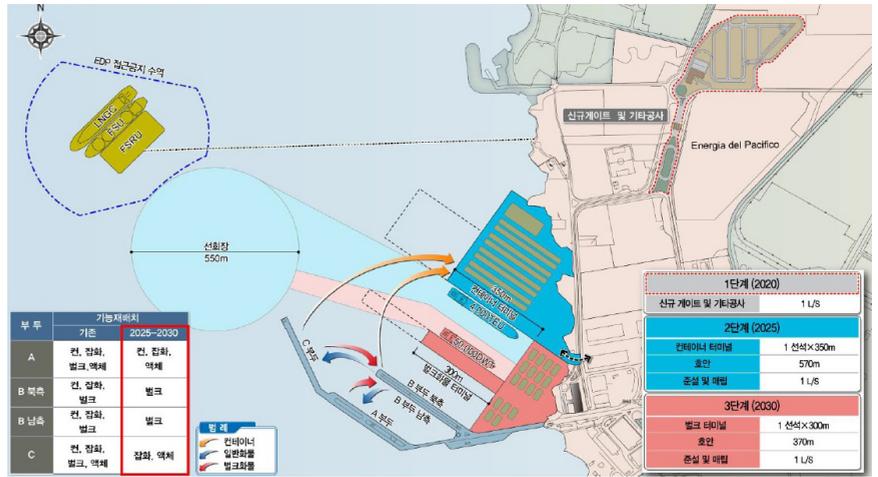
- 해양수산부는 12월 7일 엘살바도르 공항항만청과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 확장 사업과 관련한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 해양수산부는 엘살바도르 공항항만청의 요청으로 '18년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아카후틀라항의 물류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노후 시설 개선 및 항만시설 확장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 엘살바도르 정부는 '19년 아카후틀라항 확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요청했으며, 올해 7월 한국수출입은행은 EDCF 차관 제공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함
- 엘살바도르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된 차관조건, 사업범위 등을 검토하여 올해 말 한국 측에 EDCF 차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차관 지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카후틀라항 확장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임
-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 확장 사업은 엘살바도르의 제1 무역항인 아카후틀라항의 물류처리 능력 향상을 통해 엘살바도르 및 중미지역 산업·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업 기간은 '22~'26년, 사업비는 약 2.6억 달러(약 3,000억 원)임

22) 코리아워킹가제트(2021.11.30.),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lNum=132542(2021.12.15. 검색)

2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12.07.),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4004&searchSelect=title&boardKey=10&menuKey=971¤tPageNo=4>(2021.12.15. 검색)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Acajutala)항
사업 위치도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12.07.), [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4004&searchSelect=title&boardKey=10&menuKey=971¤tPageNo=4\(2021.12.15. 검색\)](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44004&searchSelect=title&boardKey=10&menuKey=971¤tPageNo=4(2021.12.15. 검색))



4) 유럽

① 아시아-북유럽항로 컨테이너선 운항편 지난 5개월간 389회 결항²⁴⁾

✎ 프랑스 해운조사기관 알파라이너가 3대 컨테이너 얼라이언스(디얼라이언스, 2M, 오션)의 아시아-북유럽항로 컨테이너선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7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2주간 389회 결항이 발생하였고, 이는 계획된 서비스 일정의 약 4분의 1에 해당함

- 선사들은 항만 적체를 회피하거나 지연된 운항 일정을 정상화하는 조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됨
- 북유럽 항만 중 노선이 가장 많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벨기에 앤트워프항, 프랑스 르아브르항, 독일 함부르크항은 예정 편수와 비교해 실제 운항이 20~30% 감소함
- 기항 횟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항만은 로테르담항으로, 418회의 예정 편수 중 311회만 실제 운항이 이뤄짐
- 예정된 편수에 비해 취소된 비율이 가장 큰 곳은 영국 팰릭스토우항으로 154편의 예정 편수 중 104편만 실제 운항이 이뤄짐

✎ 반면, 적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중소항만을 위주로 임시편 기항이 증가함

- 독일 윌헬름스하펜항 24회, 독일 브레머하펜항 16회, 프랑스 르아브르항 11회, 벨기에 제브뤼헤항 8회 등 총 77회의 임시편 운항이 이뤄짐

24) 코리아워킹가제트(2021.12.13),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Num=132690\(2021.12.14. 검색\)](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Num=132690(2021.12.14.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NSW(New South Wales) 항만청, 항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²⁵⁾

✎ NSW 항만청은 항만마다 달리 사용 중인 항만관리시스템을 단일 항만관리시스템으로 결합 중임

- 항만관리시스템 결합 작업은 OnePort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OnePort는 NSW 항만청에서 설계, 제공 및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항만 데이터 공유 플랫폼임
- 현재 데이터 공유를 위한 플랫폼과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지원할 예정임
- 보타니항의 항만관리시스템인 SHIPS과 캠블라와 뉴캐슬항의 cPorts가 OnePort로 결합될 예정임
- NSW 항만청은 OnePort를 통해 항만 운영 효율성 증대, 하역 능력 향상, 데이터 중복 감소를 기대하고 있음

25) Infrastructure Magazine(2021.11.01), [https://infrastructuremagazine.com.au/2021/11/01/nsw-port-authority-creates-new-data-sharing-platform/\(2021.12.14. 검색\)](https://infrastructuremagazine.com.au/2021/11/01/nsw-port-authority-creates-new-data-sharing-platform/(2021.12.14. 검색))



② 필바라 항만청 관할 항만, 11월 물동량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 기록²⁶⁾

- 📌 필바라 항만청(PPA: Pilbara Ports Authority)은 11월 물동량이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한 5,990만 톤을 달성함
- PPA는 포트헤들랜드(Port Hedland)항, 댄피어(Dampier)항, 애슈버튼(Ashburton)항, 바라누스(Varanus Island)항을 포함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물 수출 항만청임
- 포트헤들랜드항은 11월 물동량이 4,390만 톤이었으며 그 중 4,340만 톤(98.9%)이 철광석 수출임
- 포트헤들랜드항의 11월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16만 7천 톤을 기록함
- 댄피어항의 수입량은 11만 1천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함

26) Pilbara Ports Authority 보도자료 (2021.12.09.), [https://www.pilbaraports.com.au/about-ppa/news-media-and-statistics/news/2021/december/november-2021-shipping-figures\(2021.12.14. 검색\)](https://www.pilbaraports.com.au/about-ppa/news-media-and-statistics/news/2021/december/november-2021-shipping-figures(2021.12.14. 검색))

6) 아프리카

① 유엔무역개발회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해상 무역 촉진 예상²⁷⁾

-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아프리카 해상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함
- '21년 1월부터 시행된 AfCFTA는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의 55개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 및 인력 이동의 자유화 실현을 위해 출범한 자유무역지대임
- AfCFTA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아프리카 내부 무역량이 최대 33% 증가, 무역적자가 최대 51%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 📌 UN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는 AfCFTA의 영향으로 '30년 해상 물동량이 최소 5,800만 톤에서 최대 1억 3,2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²⁸⁾
- AfCFTA의 영향으로 '30년에는 코모로, 가봉, 감비아, 가나 등 주요 항만 도시를 통한 내륙 운송이 증가하여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항만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가 마련되면 컨테이너와 화물 물동량은 각각 180%, 1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UNCTAD는 AfCFTA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항구, 선박과 같은 기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7) UNCTAD 보도자료(2021.12.18.), [https://unctad.org/news/afcfta-could-boost-maritime-trade-africa\(2021.12.14. 검색\)](https://unctad.org/news/afcfta-could-boost-maritime-trade-africa(2021.12.14. 검색))

28)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2021, UNCTAD 발간지(2021.11.18.),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rmt2021_en_0.pdf\(2021.12.14. 검색\)](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rmt2021_en_0.pdf(2021.12.14.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21년 10월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CTI) 전월 대비 증가²⁹⁾

📈 '21년 10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23.3으로 전월 대비 1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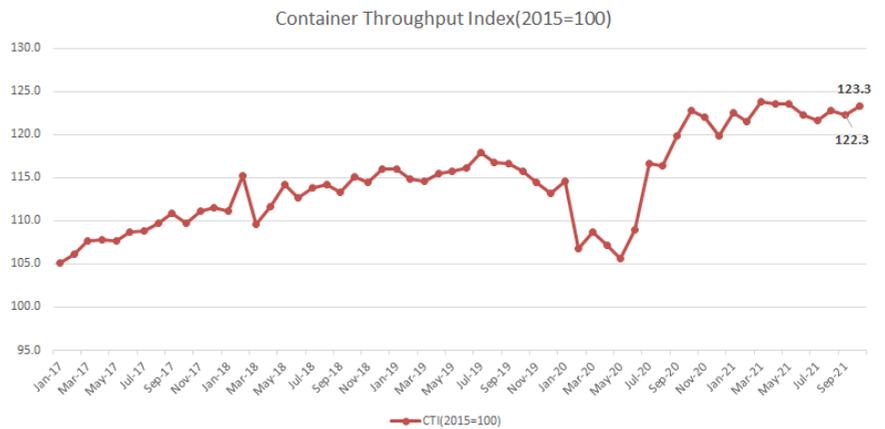
- ISL(Institute of Shipping Economics and Logistics)에서 매월 발표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CPI)는 전 세계 컨테이너 처리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주요 컨테이너 항만 98개의 물동량 실적을 통해 계산된 지표임(2015=100)

📈 중국 경기 회복에 따른 중국 항만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임

- '21년 10월 중국의 CPI는 131.7로 전월 128.5 대비 3.2p 증가하였으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반면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처리량 지수가 하락하였는데 특히 북유럽 지역의 지수는 전월 114.3에서 113.1로 하락함

📈 한편, 컨테이너 물동량은 몇 달 동안 정체되어있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의 긍정적인 추세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

ISL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 추이



29) ISL(2021.11.30),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october-2021>(2021.12.13. 검색)

자료: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october-2021>(2021.12.13. 검색)



2) 양곡

① '21년 11월 수입단가는 일부품목이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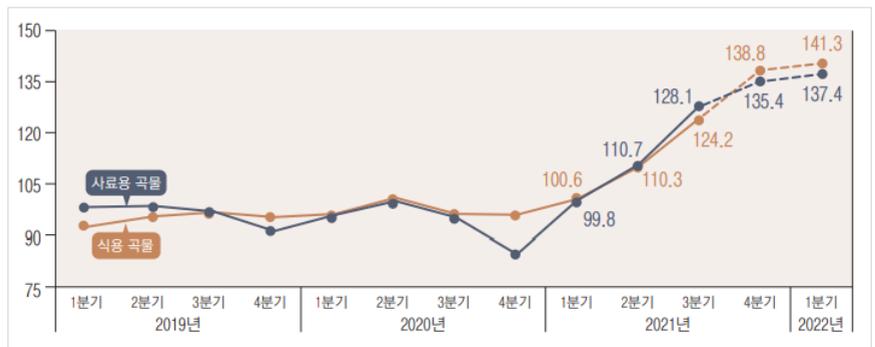
🌾 11월 식용 밀과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0.3%, 8.8% 하락한 톤당 352달러, 325달러를 기록함

- 채유용 콩의 11월 수입단가는 전월과 동일한 톤당 620달러를 기록하였음
- 11월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는 톤당 293달러로 전월 대비 4.4% 증가하였으나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소폭하락(1.1%)한 톤당 306달러를 기록함
- 사료용 대두박의 11월 수입단가는 식용 콩(채유용)의 수입단가 양상과 유사하게 전월과 동일한 톤당 494달러를 기록하였음

🌾 4/4분기 식용 수입단가지수(CIF, 원화기준)는 전 분기 대비 11.1% 상승한 138.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사료용 수입단가지수(CIF, 원화기준)도 전 분기 대비 5.7% 상승(135.4)할 것으로 예상됨

- 식용과 사료용 곡물의 수입단가 상승 추세는 '22년 1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2년 1분기 식용수입단가는 전 분기 대비 1.8% 증가한 141.3, 사료용 수입단가는 1.5% 증가한 137.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곡물 수입단가지수 동향 및 전망



30)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관측 12월호 (2021.11.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306/page/1 (2021.12.15. 검색)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관측 12월호 (2021.11.30.),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306/page/1 (2021.12.15. 검색)



3) 시멘트

① 시멘트지역 자원시설세, 국회서 부결³¹⁾

충청북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시멘트지역 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신설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부결됨

-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량 톤당 1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시 시멘트업계는 연간 250억 ~ 500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³²⁾
- 시멘트업계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신설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완제품인 시멘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임을 주장함³³⁾
- 소위원회는 시멘트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결론으로 시멘트세 신설을 부결함
- 다만 시멘트 생산업체가 낸 250억 원으로 주민 기금을 조성하여 시범 운영한 뒤 추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멘트세 신설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충청북도는 지역 개발 사업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15년부터 시멘트세 도입을 요구하고 있음

- 충청북도는 강원도와 같은 시멘트 생산지역의 지자체,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시멘트세 신설을 계속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힘

31) 한국경제(2021.12.02.),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12022000Y>(2021.12.10. 검색)

32) 한국경제(2021.11.1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1476211>(2021.12.10. 검색)

33)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보도자료(2021.11.30.), https://www.fomek.or.kr/main/bbs/board_view.php?pk_seq=630&sc_bo_table=now&page=1&(2021.12.10. 검색)



4) 모래

① 인천 굴업·덕적해역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일반해역이용 협의서 반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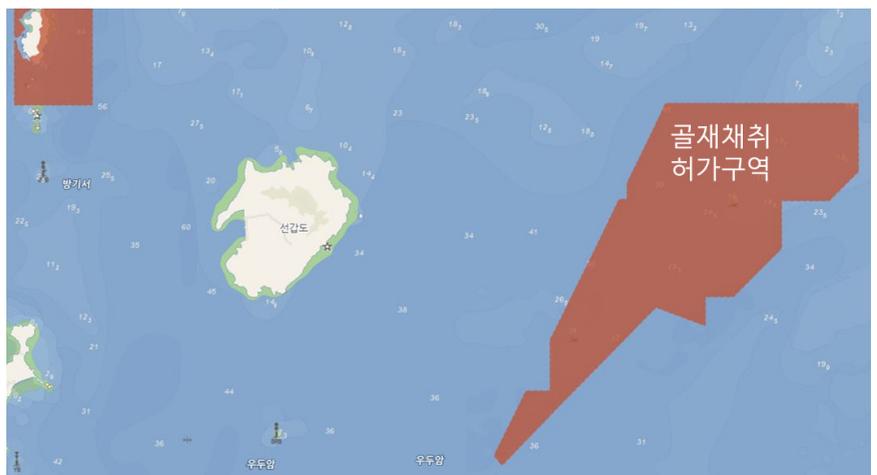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은 지역 개발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서를 반려함

- 인천시와 옹진군은 선감도 자원해역 골재채취가 '22년 10월에 끝나는 가운데 덕적해역 골재 채취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함
- 인천시는 지난 10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굴업·덕적해역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일반해역이용 협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최근 반려됨
- 일반해역이용 협의는 옹진군 굴업·덕적도 해역 19.18km²에서 5년 동안 3만 4천 m³의 해사 채취를 허가받기 위한 초기 행정 절차임³⁵⁾
-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는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에 안정적인 모래 공급과 관련 업체들의 생존 권을 위해서 해사 채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2월 8일 인천청의 해사 채취 반려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제출함³⁶⁾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선감도 인근 자원해역 골재채취 물량은 3년간 총 1,785만 m³(연간 600m³)이며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과도한 골재채취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힘
- 선감도 자원해역 인근 7개 광구는 인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19년~'22년까지 골재채취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었음

자원해역 골재채취 허가구역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공간통합관리정보시스템, KMI 제작성, <https://www.msp.go.kr/map/manaPlanMap.do?managePlanId=MNG11920002021090002>(2021.12.10 검색)

34) 인천일보(2021.12.07.),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3432>(2021.12.14. 검색)
 35) 경인일보(2021.12.08.),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207010001112>(2021.12.14. 검색)
 36) 인천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21.12.08.), <http://incho.ekfem.or.kr/archives/34744>(2021.12.14. 검색)

5) 석탄

①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³⁷⁾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25일에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힘

- 올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기온변화 흐름 등을 고려하여 기준전망 90.3GW(지난해 87.6GW), 상한전망 93.5GW(지난해 90.4GW) 내외로 예상함
-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발전 감축방안에 따라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은 유지를 하되,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의 가동을 정지할 예정임
- 상한제약을 최대 46기까지 시행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할 예정으로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18년 12월~'19년 2월, 5,406톤) 대비 미세먼지 2,838톤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3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1.25),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910&bbs_cd_n=81¤tPage=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EC%84%9D%ED%83%84(2021.12.10. 검색)

6) 철광석

① 중국 철광석 수입량 16개월 내 최대치 기록³⁸⁾

'21년 11월 철광석 수입량이 전월 대비 14.6% 증가한 1억 496만 톤을 기록하여 '20년 7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프랑스 금융그룹 Societe Generale SA는 중국 지방 정부의 경기부양책 강화로 철광석 수입량이 증가했다고 분석함
- 반면, 중국 금융그룹 Founder CIFCO Futures는 11월 철광석 수입 증가는 통관 완료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실제 수입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베이징 올림픽과 겨울철 난방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제철소 생산량을 제한하면 철광석 수입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함

38)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12.09), https://m.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1.12.09. 검색)

7) 기타광석

① 동, 니켈, 아연 등 주요 광물가격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중국의 부동산 경기악화 우려에 따라 하락세 기록³⁹⁾

오미크론 변이확산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 우려 및 중국의 헝다그룹 등 부동산 개발업체 파산 우려로 위험자산 기피심리가 확산되면서 비철금속 하방압력이 발생함

- 이에 따라 12월 2주차 전기동과 니켈 가격은 각각 전주 대비 0.2%, 0.8% 하락세를 나타냄

39)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1.12.13.),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1.12.13. 검색)



- 전기동은 중국의 주요 제련소들의 전력난 사태가 완화되면서 11월 생산량이 전월 대비 1.3% 증가하면서 가격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함
- 다만, 중국의 동 수입 증가 및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 감소세 지속 등으로 상기 하방압력이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의 11월 동 수입량은 51만 402톤으로 전월 대비 24.3% 증가하면서 올해 4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12월 2주차 LME의 동 재고량은 7만 7,395톤으로 전주 대비 1.2% 감소로 15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타이트한 수급상황을 나타냄
- 한편, 니켈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니켈메트 생산확대 전망으로 가격 하방압력이 발생함

8) 목재

① 세계 목재 산업 10월 동향⁴⁰⁾

☀️ 수요 동향

- 중국 '21년 8월 누적 부동산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1조 5천억 달러를 기록함
- 일본의 '21년 8월 주택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74,303호를 기록했으며, 목조주택 비율은 60.0%를 기록함
- 미국의 '21년 9월 주택착공은 전월 대비 1.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한 155만 5천 호를 기록했으며, 리모델링 시장은 '22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생산 동향

- 독일의 '21년 상반기 제재목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1,034만 6천m³를 기록함
- 미국 서부의 '21년 10월 누적 제재목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12,147MBF⁴¹⁾를 기록함
- 캐나다의 '21년 8월 누적 제재목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3,875만 9천m³를 기록함

☀️ 수출입 동향

- 중국의 '21년 9월 누적 목재 수입량은 원목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4,839만 5천m³, 제재목이 전년 대비 19% 감소한 2,156만 5천m³를 기록함
- 캐나다 BC주의 '21년 9월 누적 원목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63.3% 증가한 312.2만m³를 기록함

☀️ 유통 동향

- 중국 주요 항만 9월말 원목재고는 전월 대비 5% 증가한 592만m³를 기록했으며, 타이창 항의 9월말 제재목 재고 전월 대비 1% 증가한 95만m³를 기록함
- 독일의 오크 원목 수요가 증가함
- 일본의 '20년 목재 총 수요는 전년 대비 9.1% 감소한 7,443만 9천m³를 기록함

40)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1.11.30.),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65100&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ork=&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1.12.15.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165100&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ork=&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1.12.15.검색))

41) MBF는 미국의 체적단위로서 1인치 × 1피트 × 1피트를 1보드푸트(Board Foot)라 하며 B/F, bf, bm, BMF 등으로 표기하며, 1,000B/F를 슈퍼보드푸트(Super Board Foot)라 하고 MBF 또는 MBM으로 표기함(한국목재신문)

☀️ **임업정책 동향**

- 중국의 전력 공급 감소로 산업 사용자에게 대한 배급제를 시행함
- 캐나다 BC주는 노령 산림 벌채를 연기하면서 업계 반발이 발생함
- 일본은 자국의 '20년 바이오매스 에너지조사 결과를 공개함
- 뉴질랜드는 배출권 거래제의 산림유형별 평균연령을 지정함

☀️ **국내 목재산업 영향**

- 컨테이너 확보가 난항이 지속되면서 보드류 수입이 불투명함
- 국내 수출이 둔화되면서 산업용 포장 및 파레트의 수요가 하락함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산지의 생산활동 부진이 예상됨
-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가가 상승하고 있음

☀️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1년 10월 누적	2020년 10월 누적	2019년 10월 누적	'20~'21년 증가율(%)
원목(천m ³)	2,593	2,162	2,181	+19.9
제재목(천m ³)	1,765	1,787	1,937	-1.2
성형목재(톤)	101,124	103,679	100,229	-2.5
합판(천m ³)	1,335	1,282	1,251	+4.1
파티클보드(천m ³)	1,227	1,013	987	+21.1
섬유판(천m ³)	176	180	268	-2.2
목재펠릿(천 톤)	2,751	2,415	2,479	+13.9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1.11.30.),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5100&bbsId=BB5MSTR_10678&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r=&ctgyLrcls=&ctgyMdcls=&ctg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1.12.15.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65100&bbsId=BB5MSTR_10678&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r=&ctgyLrcls=&ctgyMdcls=&ctg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1.12.15.검색))



9) 고철

① 12월 국내 스크랩시장 공급량 감소 전망⁴²⁾

- ☀ 올해 스크랩의 높은 시장가격과 판매량으로 수익이 급격하게 높아진 중소 스크랩기업들이 과도한 세무 부담을 피하고자 매출을 줄일 것으로 분석됨
- 매출 규모가 갑자기 커지면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세제 및 금융 혜택이 축소되고,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시장가격의 영향을 크게 받는 스크랩업계는 호황 시 세무조정 시기인 6월과 12월에 매출을 줄이는 경우가 많음
- 올해 1~11월 스크랩 평균 시장가격은 kg 당 514원(영남권 제강사 도착도 중량A 현금 중심 값 기준)으로 '20년 평균치인 308원보다 67% 높은 수준이고, 올해 공급량은 1~9월 기준 월평균 156만 톤으로 작년 대비 약 17% 증가함
- 그러나 제강업계도 연말 재고조정 시기에 있고 제품 시장도 부진한 상황으로, 수급 균형이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42) 스크랩워치(2021.11.26.), <http://www.scrapwatch.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7> 검색

10) 철재

① '22년 조선업계 수주 호조 지속 전망⁴³⁾

- ☀ 11월 17일 한국철강협회가 주최한 '22년 철강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2년 국내 조선업계는 수주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국제조선예측전문가회의(ISFEM)는 '21~'25년 신규 선박 수요가 3,000만CGT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조선·해운 시장 분석업체인 클락슨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선박 건조는 컨테이너선 이 감소하면서 올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 '21년 9월 누적 기준 중국 조선소가 건조하는 평균 선박 사이즈는 2만 2,000CGT, 일본은 2만 CGT, 한국은 4만 6,000CGT, 독일은 8만 2,000CGT, 이탈리아는 10만CGT, 핀란드는 10만 CGT, 프랑스는 14만 1,000CGT로, 중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형 선박, 유럽은 대형 선박 건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한국은 고른 분포를 보이는 추세임
- 고부가가치 품목인 LNG 운반선 수주의 경우 국내 조선업체가 '21년 1월부터 9월까지 46척의 발주 중 45척을 수주함
- 선박 건조량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421만 톤을 기록했던 조선업계의 후판 수요는 올해 45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는 60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하고 '2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43) 철강금속신문(2021.11.17.),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5826>(2021.12.09. 검색)



11) 자동차

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OICA) 총회 및 탈탄소화 라운드테이블 참석⁴⁴⁾

이번 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참여하여 기후 변화와 탈탄소화에 대한 세계 자동차업계의 대응책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됨

- 세계자동차공업연합회(OICA) 회원국들은 탈탄소화를 위하여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투자 확대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력계 관련 기술 중립성 문제, 충전인프라 부족 문제, 급속한 전기차 전환에 의한 기존 생태계의 적응 문제 등 문제들도 상당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독일은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전환에 따른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함

- 미래 모빌리티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공유경제, 전동화로 발전할 전망이며, 현재 탈탄소화와 관련된 전동화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미국, 중국, EU의 순수전기차 점유율은 '30년 최대 35%로 확대될 전망임
- 기업의 전기차 투자는 지속 증가할 것이며 유럽은 '21년부터 향후 5년간 최대 연 41% 증가하여 약 392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 순수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19년 조사결과 대비 '21년에는 미국 3.8배, 독일 3.4배, 중국 1.5배 등 평균 2.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비자의 순수전기차 구매 시 우선 고려 요인은 주행거리, 충전인프라 접근성, 가격 등 3개 요인임
- 충전소의 경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전망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전 세계 투자 비용이 '30년까지 3천억 달러가 필요하고 전기차 전환은 배터리와 고원가 부품사용 비중을 높여 내연기관 차 대비 전기차 생산비용은 최대 59% 증가할 전망임
- 따라서 자동차 판매가격 상승과 소비자 구매력 감소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 그리고 자동차업체의 수익감소를 촉진할 우려가 있음
- EU 자동차 업계의 전체 고용인구는 약 1,260만 명이며, 완성차 제조분야에 약 257만 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은 고용과 부품업체의 사업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영국자동차협회(SMMT)는 토론에서 197개국 동의로 채택한 글래스고 기후변화협약 관련 자동차 업계차원의 대응을 강조함

- 지난 10월 31일 글래스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와 관련하여 각국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지구 온도 감축 목표치 1.5도를 유지하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공동 확인함
- 석탄사용 감소촉진을 위한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축소, 100% 무공해 승용차 및 밴으로의 전환 촉진,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분야 지원 등을 주로 다룸

44) 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2021.11.24.), [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67&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12.15. 검색\)](http://www.kama.or.kr/BoardController?cmd=V&boardmaster_id=Bodo&board_id=567&menunum=0002&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1.12.15. 검색))



- 주요 선진국은 '35년, 나머지는 '40년까지 무공해 차량만 판매하는 것을 이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소개함
- 각국 정책 당국자는 무공해차 전환 가능성과 업계 상황 등에 대한 냉정한 진단 없이 일종의 슬로건으로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과도한 목표에 대한 속도 조절과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한 자동차 업계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동등 대우정책과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강조함

- 한국의 경우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 탈탄소화 노력으로 인해 친환경차의 시장점유율이 '20년 11.8%에서 '21년 9월까지 18.8%로 높아졌으며, 수입차 시장점유율은 '21년 9월까지 대수 기준으로 37%, 금액 기준으로는 41.3%를 차지하는 등 약진하고 있음
- 수입차 약진은 '20년 보조금 중 34.4%를 수입차에게 제공하는 등 국산과 수입산 간 동등 대우 정책에 힘입었으며, 경쟁 확산 시 촉진되는 기술혁신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 각국도 수입산과 자국산 친환경차에 대한 동등대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 세계 각국은 자동차 동력계와 관련하여 기술 중립적이고 개방적 입장을 견지하여 다양한 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기술혁신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에 의하여 촉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R&D지원 확대, 충전인프라 확충, 재정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정책 우선으로 기술혁신기반을 넓혀 가야 할 것임

 중국자동차협회(CAAM)는 중국의 친환경차 보급 및 전망에 대해 소개함

- 중국은 비화석연료 사용 비율을 '20년 15.9%, '25년 20%, '30년 25%로 늘려가면서 '60년엔 80%까지 확대할 계획임
- 중국은 지난 6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생산,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1년에는 전기차 생산, 판매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약 300만 대를 초과할 전망임
- 중국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뿐만 아니라 수소엔진 및 수소연료전기 차량 개발과 생산, 최신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 연료 엔진 개발 등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갈 것임

 일본자동차산업협회(JAMA)는 전기차 전환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 탄소중립은 내연기관 판매금지 등 특정 기술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부품업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조정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제품 생애 전주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의 발전에너지 믹스구조로는 전기차가 더 친환경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수소엔진, e-fuel, 하이브리드 등 자동차 동력계 관련 기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갈 필요가 있음



12) 잡화

① '21년 10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181억 6,900만 달러, 수입 금액은 6.2% 증가한 103억 8,700만 달러 기록⁴⁵⁾

✎ 10월 기계 산업 수출은 수송기계업 부문(-1.6%)을 제외한 모든 부분(일반기계: +11.9%, 전기기계: +7.2%, 정밀기계업: +11.7% 등)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10월 기계 산업 수입도 일반기계업(+22.1%)과 전기기계업(+18.0%), 금속제품업(+15.3%)등 부문에서 증가세를 기록하고 수송기계업 부문(-18.0%)만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 주요 교역국인 중국(+1.6%), 미국(+3.5%), 일본(+7.9%)으로의 10월 기계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함

(단위: 백만 달러, %)

'21년 10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구분	'21. 10				'21. 1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18,169	4.9	10,387	6.2	181,913	19.5	113,509	19.8
일반기계업	4,220	11.9	3,384	22.1	43,285	11.0	37,138	21.3
전기기계업	3,947	7.2	2,265	18.0	36,207	26.1	21,376	24.2
정밀기계업	1,638	11.7	2,077	0.8	15,861	19.1	24,365	25.2
수송기계업	7,471	-1.6	2,058	-18.0	77,595	22.9	24,926	11.7
조선	1,455	4.6	151	-45.5	17,276	14.6	2,410	2.5
금속제품업	893	9.8	602	15.3	8,965	11.6	5,704	11.9

46)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2월호(2021.12.15.),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12.15. 검색\)](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12.15. 검색))

자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12월호(2021.12.15.),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12.15. 검색\)](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2021.12.15. 검색))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유류·화학공업생산물

①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GS 칼텍스, 에너지 설비 국산화 추진을 통해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도모⁴⁶⁾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향상 프로젝트인 '생산성 혁신 고 투게더' 성과 보고회에 따르면 '21년 8개 기업의 9개 사업 지원을 통해 109억 원의 매출을 증대하고 24억 원의 비용을 절감함

-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펌프설비 회사와 배관검사 전문 기업 등이 국외제품에 의존했던 기술을 국산화하여 제품 생산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확보까지 성공함
- KITECH가 주관하고 GS 칼텍스가 연구개발 지원 및 소요 비용을 출연하는 '생산성 혁신 고 투게더' 프로젝트는 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협력사들의 R&D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난 6년간 600억의 매출증대와 124억 원의 비용절감 성과를 창출함

※ 탄소중립 추진으로 에너지 산업기반의 변화가 도래함에 따라 공급망의 경쟁력 향상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됨

- 에너지 정유사들은 주요 설비 및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사들의 역량향상을 통한 공급망 경쟁력 향상과 함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사와 에너지 설비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

② 롯데케미칼, 탄소중립 위한 탄소 포집 활용 기술 실증 완료⁴⁷⁾

※ 롯데케미칼은 여수공장 내 기체분리막을 적용한 탄소포집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임

- 올해 3월 여수 1공장 내에 탄소 포집 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파일럿 설비를 설치하고 9개월간의 실증 운영을 진행했으며, 기체분리막을 적용한 CCU 설비의 실증을 완료하고 상업화를 위한 설계에 본격 돌입함
- 향후 경제성 검토를 거친 후, 약 600억 원을 투자해 '23년 하반기 상업생산을 목표로 대산공장 내 약 20만 톤 규모의 CO₂ 포집 및 액화 설비를 건설한다는 계획임
-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와 탄소배출권 가격 증가 등이 산업계의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CO₂ 포집·활용 기술을 검토해왔으며, 이번 실증 완료한 기체분리막 기반의 탄소 포집 설비는 환경오염이 적고 공정이 간단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와 작은 부지에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임
- 향후 여수공장 설비 확장 및 그린메탄을 생산 등에 CCU 기술을 적용하여 CO₂ 포집 및 활용 규모를 '30년까지 연간 50만 톤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충하고 국가 탄소중립정책을 선도적으로 실현할 방침임

46)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12.9), 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743/page/1/term_id/6/v_mode/user (2021.12.15 검색)

47)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동향(2021.12.06), https://www.kpia.or.kr/index.php/bbs/view/id/101740/page/1/term_id/6/v_mode/user (2021.12.15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1. 12. 27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